R&D팀

2021년 9월 MICE 산업 동향

2021. 10.



목 차

1.	MICE산업	과 게이미피케이션		3
2.	해외시장	동향	1	0
3	국내시장	동향		R

1. MICE산업과 게이미피케이션¹⁾

-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행사의 꽃이었던 MICE산업이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등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MICE 행사가 개최됨
 -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게임의 재미, 몰입 요소와 게임을 제작하는데 드는 절차, 전략, 기법 등을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동기부여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함
-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MICE 행시는 게임 요소로 참가자의 흥미를 유도해 참가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몰입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함
- 따라서, 본 고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의 대표적인 방법인 게더타운과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가. 게더타운(Gather.town)

● 게더타운은 행사 참가자들이 아버타를 이용해 자유롭게 플랫폼을 둘러보고, 다른 참가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가상 환경 플랫폼으로 온라인 게임과 유사한 포 맷을 갖고 있음

1) 게더타운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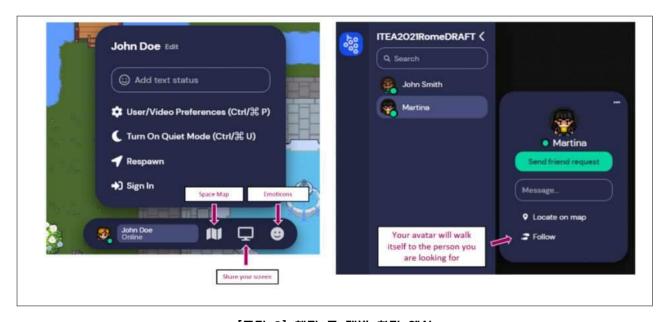
- ① 게더타운 이용료는 참가자 수와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참가자 최대 25명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2시간 이상, 500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참가자당 2달러씩 비용이 부과됨
- ② 게더타운은 행사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 이메일 주소로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개별 전송되는 링크를 통해 게더 플랫폼을 설치 후 접속이 가능함
- ③ 아바타의 외형과 이름, 의상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원할 때 따라 아바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음

¹⁾ 본 고는 게더타운 공식 홈페이지(https://www.gather.town/) 등 관련 사이트의 정보를 종합하여 정리함



[그림 1] 게더타운 설치 및 아바타 설정 화면 예시

- ④ 아바타가 만들어지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가상 공간으로 이동해 공원이나, 회의실을 키보드 화살표를 작동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고,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에게 접근하면 영상통화 또는 음성 채팅 수락 아이콘이 활성화 됨
- ⑤ 채팅을 통해 메시지를 특정 참가자 또는 게더타운에 접속해 있는 모든 참가자에 게 전체 메시지로 보낼 수 있으며, 대화 중 이모티콘을 사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그림 2] 채팅 등 개별 화면 예시

⑥ 컨퍼런스의 각종 연설 및 패널 토론의 경우, 발표자의 발표 화면 공유와 참가지들 간의 채팅창을 통해 참가지들 간의 소통과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함



[그림 3] 게더타운 컨퍼런스 화면 예시

2) 게더타운의 주요 특징 및 사례

• 게더타운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창의성, 리얼리즘, 상호작용에 특화된 특징이 있음

<표 1> 게더타운의 세부 특징

특징	세부 사항
창의성	 참가자가 원하는 대로 아바타의 외형과 의상 등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음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테마가 적용된 약 70여 가지의 공간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음 행사의 테마에 따라 테트리스, 스도쿠와 같은 게임을 포함 시킬 수 있음
리얼리즘	- 개인 아바타 외에도 유투브 동영상 등 다양한 음향 시스템을 연동해 배경음악이나 분수 소리, 벽난로 소리 등을 적절한 아이콘을 통해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유사한 음향을 접할 수 있음

특징	세부 사항	
	- 행사 공간을 구성할 때 실제 컨퍼런스나 전시회 등이 개최되는 오프라인 행사장과 유사하게 구	
	성할 수 있음	
상호작용	-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해 아바타를 움직여서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 홀 또는 소규모 미팅 룸 등에 서 원하는 상대와 채팅을 하며,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화상 채팅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과 달리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함	

● 2021년 10월까지 게더타운을 이용해 개최한 대표적인 국내 컨퍼런스 및 행시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 게더타운 사례

 사례	세부특징
2021 스포츠산업 일자리 컨퍼런스 대비스 및 REL 스토츠산업 및 REL 2021 스포츠산업 및 REL 2021 스포츠산업 및 REL 2021 및 REL	- 국민체육공단이 주최해 10월 7일 개최된 '2021 스포츠산업 일자리 컨퍼런스'는 사전 신청을 한 500명의 참가자를 게더타운 행사장으로 초대해 진행함 - 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일자리 컨퍼런스, JOB 토크 콘서트, 채용설명회 등이 진행됨
2021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서울경제가 게더타운을 활용해 제11회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를 개최함 서울경제는 컨퍼런스 동시접속자가 많아질 경우 버퍼링이 발생해 참석자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게더타운 본사와의 컨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게더타운은 컨퍼런스 룸의 IP 주소 목록을 제공했으며, 발표자와 실무진과 네트워크환경 점검과 발표자료 공유 등 리허설을 거쳐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함
2021 넷마블 온라인 채용 박람회 '넷마블 타운'	 한국 대표 게임업계인 넷마블은 9월 30일~10월 1일까지 온라인 채용 박람회인 '넷마블 타운'을 개최함 넷마블 타운은 넷마블 신사옥인 '지타워'의 배경을 게더타운으로 구현했으며 사전 신청을 받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가상 공간을 둘러보며 실시간 직무 상담과 이벤트 등을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됨 지타워의 2층 컨벤션홀에서는 채용 전형 및 직무에 대한 소개 영상을 송출했고, 3층 상담부스에서는 직무별 실시간 상담을 실시해 참가자에게 신선한 방식으로 채용 정보를 전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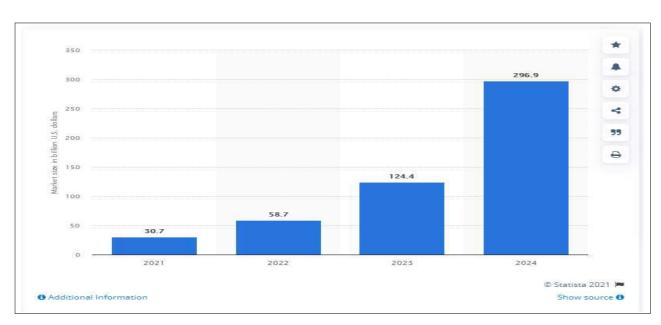
출처: http://mksports.co.kr/view/2021/947461/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37EUQ5B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4_0001592165&cID=13001&pID=13000

나. 메타버스 (Metaverse)

- 메타버스란,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1992년 닐 스티븐슨 이 쓴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ICT 기술과 결합해 현실감을 극대화한 실감 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함
- 많은 ICT 업계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으며, 원격 근무를 통해 가상 회의실에서 아바타로 만나 실시간 프레젠테이션 회의를 진행하거나, 가상 스튜디오에서 콘서트, 가상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많은 사람이 3D 아바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대한 가상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함

1) 메타버스 연구 조사 결과 요약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미국 메타버스 전문업체인 로블록스(Roblox)는 2021년 1분기에 약 4,200만 명이 넘은 일일 사용자가 방문했으며, 대체로 미국의 Z세대가 로블록스 계정을 갖고 있으며,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의 경우 누적 이용자 수가 2억 명을 넘었으며, 이중 8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스타티스타에서 실시한 가상현실(VR) 등 메타버스 시장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장 규모 변화를 예측한 결과, 2021년 307억 달러(한화로 약 36 조 3,948억 5,000만 원) 규모에서 2024년 3,000억 달러(355조 6,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그림4)



[그림 4] 2021년~2024년 가상현실(VR) 시장 규모 변화 추이

2) 메타버스 주요 특징 및 사례

● 글로벌 엑스(Global X)는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 있는 6가지 주요 특성을 〈표 3〉과 같이 아이덴티티, 다중장치, 몰입, 경제성, 커뮤니티, 시간 지속성으로 구분함

<표 3> 메타버스 주요 특징

 특징	세부사항
아이덴티티 (Identity)	- 메타버스는 아바타로 유저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가상 속의 자신을 만들 수 있음 - 실제 본인과 다른 외형적 특징, 성별, 다른 종,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속 주인공 모습 등 원하는 대로 본인의 아바타를 표현할 수 있음
다중장치 (Multi-device)	- 메타버스는 PC, 테블릿, 또는 기타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어디서나 컴퓨터 구현 환경에서 VR 헤드셋을 사용해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음
물입 (Immersive)	 현재까지 개발된 VR은 시각과 청각 위주이지만, 차세대 VR 기기는 다양한 자극을 통해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로잡아 몰입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임 전기 자극을 통해 신체적 감각을 제공하는 바디수트를 입고 메타버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경제성 (Economy)	- 디지털 또는 전자 화폐로 돈을 벌고 소비하는 경제적 기능을 갖추고 있음 - 메타버스 초기 모형인 로블록스(Roblox)의 경우, 달러로 아바타를 위한 아이템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음
커뮤니티 (Community)	- 메타버스는 유저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동시간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유저들과 실시간 으로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음
시간 지속성 (Real-time Persistent)	- 메타버스는 디지털의 특성상 시간적 제약 없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후에 도 행사 관련 데이터와 참가자 정보 등 행사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음

출처: https://www.globalxetfs.com/the-metaverse-takes-shape-as-several-themes-converge/

- 실제로 메타버스는 2017년 7월 에픽 게임스(Epic Games)의 포트나이트(Fortnite) 를 이용해 팝가수(아리아나 그란데, 트레비스 스콧)가 가상 콘서트를 개최된 선 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등장한 새로운 개념으로 보긴 어려움
- 그러나, 코로나19로 언택트 플랫폼이 각광 받으며 여러 기업에서 개최하는 회의 와 전시관과 박물관의 전시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회의, 행사, 전시물 감상 등을 진행했으며, 국내에서 진행한 메타버스 행사 사례는 아래 표4와 같음

<표 4> 메타버스 사례별 특징

사례	세부특징	
국립중앙박물관	 인기 비디오게임인 마인크래프트(Minecraft)를 이용해 실제 박물관과 동일한 어린이 박물관 가상 환경을 오픈해 어린이들이 아바타를 이용해 다양한 미션을 클리어하면서 체험을 함 어린이 박물관 서버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가자 9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힘 	
페이스북 코리아 Spatial FACESONA	 페이스북 코리아는 가상 원탁회의를 개최해 기자들에게 VR 헤드셋을 제공하고, 메타버스 어플인 Spatial을 통해 온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VR 헤드셋을 쓴 참가자들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AI)로 스캔해 3차원 아바타를 만들었으며, 참가자들의 움직임대로 손과 눈동자가 움직이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음 또한, 녹음, 녹화, 스크린샷, 필기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SK 텔레콤 점프 버추얼 밋업 채용박람회	- SK 텔레콤의 점프 버추얼 밋업 채용박람회는 최대 120명이 동시 접속 할 수 있는 컨퍼런스 홀, 카페 등 다양한 가상현실(VR)공간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앱으로 각 공간에서 참가자들 간의 문자, 음성 채팅, 모션 등으로 소통할 수 있음 - 또한, 발표 자료 등 PDF 자료를 회면 공유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출처: https://news.sktelecom.com/130615 출처: https://www.kedglobal.com/newsView/ked202105260007 출처: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811000891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홍콩: 2022년 주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최종 개최지 확정

- 홍콩은 2022년 2개의 주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 'Greater Bay Are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Conference 2022 (GBAAIR Conference)'와 'IEEE Region 10 Conference 2022 (TENCON)'개최지로 최종 확정됨
 - 해당 두 컨퍼런스는 테크놀로지 전문가에게 주요 기술 혁신 정보를 전달하며, 홍콩이 가진 IT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GBAAIR 컨퍼런스는 홍콩과 중국 및 전 세계의 인공지능과 로봇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라는데 의의가 있음
- TENCON은 1,000명 이상의 기술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기술과 비즈니스 통합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태국: 태국 컨벤션전시뷰로, MICE 육성 강화를 위한 '2022년 MICE 산업 육성 전략' 발표

- 태국 컨벤션전시뷰로(Thailand Convention & Exhibition Burea, TCEB)는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인프라 확대, 기술력 향상, 국제행사 유치 전략 등을 중심으로 '2022년 MICE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함
- MICE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태국 내 도시들의 MICE 산업 최적화와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행사 유치 지원, 새로운 행사 발굴 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새로운 행사를 발굴하기 위해 태국 컨벤션전시뷰로(TCEB)는 다양한 태국 도시의 '축제 경제(Festival Economy)'라는 개념을 도입해 '1개 도시:1개 라이센스 이벤트('1 City: 1 Licence Event)'를 만들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경제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그니처 국제 축제 발굴 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함
- 또한, 태국은 국제컨벤션산업협회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 와의 협력을 통한 MICE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인지 도가 높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싱가포르: 아웃바운드 이벤트 전문기업, 싱가포르 중심 국제 비즈니스 행사 개최 사업부 론칭

-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웃비운드 이벤트 전문기업인 M.I.C.E Matters는 싱가포르 중심의 국제 비즈니스 행사 개최 사업부인 'Insider MICE SG'를 론칭 하기로 결정함
- 디렉터인 멜빈 노니스(Melvyn Nonis)는 코로나19 이전까지 해외에서 개최했던 행사의 90%를 싱가포르로 가지고 왔다고 밝혔으며, 라스베가스와 리우데자네이 루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이벤트와 갈라 디너쇼 등을 개최했던 경험을 살려 싱가포르를 강력한 MICE 행사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계획이라 밝힘
- Insider MICE SG는 싱가포르의 공급 네트워크 연결, 행사를 개최할 목적지 조사,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SG SafeEvents' 인증을 받을 예정임
- 멜빈 노니스는 인바운드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한 수요가 짧은 시일 내에 큰 성 장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제 여행객을 대상으 로 국경을 개방하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제 여행객에게 국경을 개방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행사와 인센티브를 재개 할 준비가 된 주최 측을 선점할 수 있다고 밝힘



A Division of M.I.C.E. Matters

[그림 5] insider MICE SG 로고

■ 대만: 디지털 기술 솔루션 개발 및 가상 전시 플랫폼 출시 등 뉴노멀 MICE 개최 준비

- 대만은 디지털 기술 솔루션 개발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상 전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뉴노멀시대 MICE 이벤트를 확대하고자 함
- 대만은 5G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MICE 행사 개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증강현실과 디지털 장비 운영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무역 박람회에 가상 부스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대만 MICE 뷰로 'MEET Taiwan'의 전무 사이먼 왕(Simon Wang)은 아시아 지역은 디지털과 하이브리드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행사를 개최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PCMA의 APAC 조사에도 약 80%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응답자들이 하이브리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북미 지역은 27%에 그침
 -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이브리드 행사에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 12월 스위스로 첫 인센티브 여행 계획 발표

- 인도네시아 마신도 그룹(Massindo Group) 경영진은 코로나19 이후 첫 번째 인 센티브 여행으로 12월에 168명이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임
 - 미신도 그룹은 인도네시아 소재 고급 침구류 기업으로 스프링에어(SpringAir)와 테라 피딕(Therapedic)과 같은 국제적인 브랜드의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음
 - 인센티브 투어의 세부 프로그램은 미정이지만, 열흘간 취리히, 발레, 루체른호 등을 투어할 계획임
- 인센티브여행사인 엑스퍼트 인도네시아(Xpert Indonesia)는 코로나19 여행 보험 과 PCR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후에는 8 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계획임
- 엑스퍼트 인도네시아 대표인 스테파누스 수하리(Stephanus Suharli)는 스위스가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가 이뤄졌으며, 인센티브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 다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힘

나. 미주 지역

■ 미주: 바이든 정부, 백신접종자 대상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 9월 20일, 조 바이든 정부가 11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관광·MICE 분야 관계 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 관광·MICE 산업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이는 코로나 발생 이후 18개월 만에 전면적인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는 공식 발표임
- 11월 초부터 해외 관광객은 탑승 전 백신 접종 확인증과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출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고, 도착 후에는 자가격리 기간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며, 연락처 추적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코로나19 담당관인 제프 젠츠(Jeff Zients)는 미국의 외국인 입국 허용은 새로운 국제 여행 시스템으로 국가 기반의 방역 접근 방식이 아닌 개인 기반 접근 방식은 앞으로 더 강력한 시스템이라 말함
- 미국 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의 로저 다우(Roger Dow)는 백신 접종 자에 한한 규제 완화가 바이러스 관리에 있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며, 여행 규제로 인해 손실된 일자리 회복을 가속화 할 것이라 말함
- 뉴욕은 여행 제한 완화로 2019년 맞이했던 6,660만 명의 절반 이상 수준인 약 3,610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함

■ 미주: 대규모 컨벤션센터, 행사 공간 확장 및 최첨단 기술 도입 등 본격 레노베이션 착수

- 오클라호마(Oklahoma)는 올해 초 2억 8,800만 달러(한화로 약 3,432억 3,840만 원)로 오클라호마 시티 컨벤션센터(Oklahoma City Contention Center)와 605개의 객실을 갖춘 옴니 오클라호마시티 호텔을 오픈해 회의, 컨벤션, 무역 박람회등을 개최할 계획임
- 뉴욕의 자비츠센터(Javits Center)는 5월에 15억 달러(한화로 약 1조 7,872억 5,000만 원)를 투자해 총 120만 평방피트의 행사 공간과 최첨단 기능을 갖춘 회의실을 만듦
- 레시 엑스포(Resch Expo)는 무역 박람회, 엑스포, 스포츠 행사, 콘서트 등을 위한 야외 행사장, 테라스, 실내와 실외를 연결할 수 있는 유리문 등을 설치해 외향적인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 플로리다의 게이로드 팜스 리조트 앤 컨벤션센터(Gaylord Palms Resort and Convention Center)는 1억 5,800만 달러(한화로 약 1,882억 5,700만 원)로 10만 평방 피트 상당의 공간 확장과 306개 객실을 만들며, 대규모 행사, 야외 만찬 등 다양한 행사 공간을 확보함
- 텍사스의 더 베이스(The BASE)는 3,200만 달러(한화로 약 381억 2,160만 원) 규모로 다목적 시설을 전시공간으로 제공해 무역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유치할 계획임



[그림 6] (왼쪽부터) 자비츠 센터, 레시 엑스포, 더 베이스

다. 구미주 지역

- 영국: 코로나19 프리 선언 후, 전시장 및 호텔 90% 이상 점유율, 520여 개 행사 예약 등 회복 진전
- 코번트리 (Coventry) 와 워릭셔 (Warwickshire) 지역의 대표적인 MICE 행사 베뉴인 쿰비 애비 호텔 (Coombe Abbey Hotel), 코벤트리 빌딩 소사이티 아레나 (Coventry Building Society Arena), 워릭 컨퍼런스 (Warwick Conferences)는 해당 지역의 컨퍼런스와 전시 분야 사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고 밝힘
- 코벤트리 빌딩 소사이어티 아레나(Coventry Building Society Arena)는 현재 메인 전시장과 호텔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올해까지 2019년과 동일한 사업 수준으로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음
- 코벤트리 빌링 소사이어티 아레나의 디렉터인 폴 마이클(Paul Michael)은 75,000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했고, 2022년에는 이미 520개의 행사가 예약되었다고 말함
- 워릭 컨퍼런스는 최근 아트 센터 개조 사업을 마치고 매주 평균 9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쿰비 애비 호텔(Coombe Abbey Hotel)도 9월 한주동안 29건의 행사를 개최함





[그림 7] (좌) 코벤트리 빌팅 소사이티 아레나, (우) 워릭 컨퍼런스

라. 오세아니아 지역

■ 뉴질랜드: 테패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 환경마크 골드 인증 획득 등 녹색 여행지·지속가능성에 주목

- 뉴질랜드 테패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Te Pae Christchurch Convention Center)가 2021년 12월 개장을 앞두고 토이투 환경마크 골드 인증(Toitū enviromark gold certification)을 획득함
 - 토이투 환경마크 프로그램은 뉴질랜드 내 효과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테패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는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400석 규모 의 홀과 전시공간, 24개 회의실 등을 갖춤
- 테패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 매니저인 제이슨 스튜어트(Jason Stewart)는 깨 끗한 녹색 여행지라는 뉴질랜드의 명성과 행사 베뉴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중요 해짐에 따라 청정 녹색 목적지로서의 뉴질랜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환경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밝힘



[그림 8] 테패 크라이스트처치 컨벤션센터 전경

■ 호주: 맬버른 컨벤션뷰로, 총 41개 비즈니스 이벤트 개최 확정

- 맬버른 컨벤션뷰로(Melbourne Convention Bureau, MCB)는 올해 총 41개의 비즈니스 이벤트를 확보했으며, 약 4만 명의 참가자와 약 1억 4,770만 달러(한화로 약 1,294억 6,348만 1,000원)의 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함
- 2023년 맬버른은 국제 공간 구조 협회 심포지엄(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hell and Spatial Structures, SIASS) 유치에 성공하면서 500여 명의 대표 단과 약 200만 달러(한화로 약 17억 5,32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 맬버른 컨벤션뷰로 대표인 줄리아 스완슨(Julia Swanson)은 심포지엄의 일부로 참가 자들에게 맬버른의 상징적인 첨탑 시드니 마이어 뮤직 볼(Sidney Myer Music Bowl) 과 맬버른 랙탱귤러 스타디움(AAMI Park) 등 맬버른의 유명한 건축물을 소개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포함할 계획이라 밝힘
- 또한, 2023년 로터리 국제 컨벤션(2023 Rotary International Convention) 등 27개의 국제적·국가적 규모의 MICE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총 2만 명의 참가자와 8,800만 달러(한화로 약 771억 1,440만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임



[그림 9] 맬버른 컨벤션 뷰로

_ _ _

3. 국내시장 동향

- 한국PCO협회: 국제회의기획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회의기획업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시업'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PCO협회는 지난 7월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국제회의기획업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회의기획업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함
- 본 사업은 업무 특성상 행시준비 및 개최로 인한 근로시간 초과 등과 관련된 노 무관리 전반에 대한 설계 및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며, 주 52시간제 대응책을 마 련하기 위해 기획됨
 - 주 52시간제 시행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며, 근로자 수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 규칙 운영,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상담할 예정임
- 지원대상은 관광사업등록증상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상시 근로 자 수에 따라 10인 이상일 경우 맞춤형 집중 컨설팅이, 10인 미만일 경우 단축 형 프로그램이 지원됨
 - 맞춤형 집중 컨설팅의 경우 2개월 동안 최소 5회 이상의 상담을 지원하며 규정 정비, 적합성 진단, 임금관리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노무관리 진단 컨설팅'과 업계 맞춤 형 근로시간 실태조사 및 진단, 맞춤형 유연근무제 설계 등을 고안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컨설팅' 분야가 포함됨
- 지원 금액은 직원 규모에 따라 최저 440만 원부터 최대 770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협회에서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임
- 지원기업으로 선발될 경우 컨설팅 과정 중간과 완료 이후 노사합의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수행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함

■ 한국 7대 MICE 관련 협회: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 9월25일, 한국 MICE 관련 7개 대표 협회인 한국PCO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이 벤트산업협동조합 등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즉시 시행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함
 - 공동성명에는 위드 코로나 정책 대전환, 백신 여권 제도 도입, 정부행사 재개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1년 9개월 동안 전시서비스업은 약 70%, 전시주최업은 55%, 이벤트를 포함한 행사업은 4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해 폐 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고용인원도 대폭 감소함
-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을 통해 해외 참가자들의 국내 입국을 위한 백신 여권제도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시 이벤트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해야 업계 생태계의 보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 공동성명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협회 협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 승훈 회장은 전시회, 국제회의 등 MICE산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수출, 내수촉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 특화업종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그림 10] MICE 업계 위드코로나 정책 공동성명

■ 서울: '2021 메타버스 서울안전한마당' 개최, 안전체험·교육도 메타버스로 변화 주목

- 9월 15일~1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서울시 주요재난 대비 안전체험 프로그램 '2021 메타버스 서울안전한마당'을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로 개최함
 - 서울안전한마당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안전문화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온라인으로 개최됨
 - 로블록스(Roblox)란, 1989년 개발되어 현재 1억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크리에이터로 행사가 개최되는 가상공간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과 만나 교류할 수 있음
- 행사에는 다양한 체험 코너, 안전작품 전시장 등을 설치한 행사장을 구현하여 안전체험게임, 숨어있는 행사 포스터 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공개 5 일 만에 1만여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함
- 이프랜드(ifland)에서는 전문강사 15명이 참여하는 릴레이 안전강연을 진행했으며, 인기 유튜버들이 제작한 안전 영상콘텐츠를 송출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할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함



[그림 11] 2021 메타버스 서울안전한마당

■ 인천: 코로나19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인천 MICE 업계 자금지원' 실시

-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역 MICE 업계의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코 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MICE 업계 자금지원사업' 공모 계획을 밝힘
-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MICE 행사 개최실적이 있는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기획업, 전시디자인설치업, 전시서비스업, 인천 MICE얼라이언스 등 관내 MICE 업체이며,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임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뉴노멀 시대 변화하는 MICE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역량 개발비를 비롯하여 안전한 행사개최를 위한 방역물품 구매,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마케팅 대행 등의 유무형의 재원을 지원함
- 홍준호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MICE 업계가 새로운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사업화 자금이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대책 및 성장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그림 12] 인천 MICE업계 자금지원 포스터

■ 인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 진행

- 인천광역시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28, UNFCCC COP28)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COP28 인천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힘
-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진행된 'COP28 인천시 유치 추진단' 발족에 이은 후속 과제로, 당사국총회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유치에 대한 인천시민의 열망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됨
 - 인천시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의 당사국총회 개최도시 공모 시작 시 원본을 주최 측에 제출하여 추후 발표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서명운동은 9월 23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의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오프라인의 경우 시청, 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를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197개 당사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에서 3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치에 성공할 경우 1,600억 원 상 당의 경제효과와 1,000여 명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인천시는 탈석탄 국제동맹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을 추진한 바 있으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임

■ 경기도: 수원시, 세계문화유산도시 브랜딩을 위한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개최

- 9월 24일~25일, 지역특화 MICE 행사로 수원시가 기획한 첫 번째 국제회의인 '2021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됨
- 세계유산과 도시브랜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컨 벤션센터가 주관하며 세계유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MICE 산업 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세부 세션으로 국제기념품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 송인호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아태지역 사무국장 황해국,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 회(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 랜디 더번드(Randy Durband) 등의 주제발표 와 강연 등이 있음
- 수원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본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 원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 MICE 도시 수원의 브랜드를 확립하는 지역 대표 글로벌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임
-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회식에서 수원컨벤션센터는 개관 2년여 만에 경기 남부의 MICE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며 수원시의 모든 문화적 자산이 수원컨벤션센터 를 중심으로 MICE 산업과 연계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함



[그림 13] 2021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포스터

■ 충청도: 청주, 중부권 최대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 오송컨벤션센터 착공, 2024년 개관 목표

- 충청북도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최대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인 오송컨벤션센터 (O-song Convention Center, OCC)가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축공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함
- 컨벤션센터는 KTX 오송역 인근에 위치하며, 전체면적 3만9725㎡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비롯해 3,393석 규모의 9개 회의시설과 1,05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도민 누구나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과 편의점, 카페 등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임
- 컨벤션센터의 전체면적은 3만972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이 중 전시장은 500개 이상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1만㎡로 전국 17개 센터 중 7 번째로 큰 규모임
 - 건물의 외관은 오송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인 씨앗을 형상화해 설계하여 지역의 특색을 강조함
- 충청북도는 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6년 만에 착공에 돌입한 만큼, 지역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오송컨벤션센터를 중부권 최대의 전시·컨벤션 시 설로 만들 계획임
- 충청북도는 오송 1·2산단의 우수한 인프라와 연계해 MICE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화산업인 의약·바이오, 화장품·뷰티, 첨단과학,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세계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전시관 주변에 국제 K-뷰티 스쿨, 바이오 문화센터, 호텔, 쇼핑몰 등을 건립하여 MICE 산업을 너머 청주를 대표하는 명소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힘
-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가치는 생산유발 효과 4,783억 원, 부가가치유발 1,600억 원 및 고용 창출 3,285명 규모로, 전시장 건립을 통한 지 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견됨

■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최첨단 전시장 구축

- 대전마케팅공시는 2022년 4월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개관을 앞두고 첨단 디지털 전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메타버스 기반의 'DCC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함
-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대전컨벤션센터 1, 2전시장 내부와 주변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방문객이 실제로 전시회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견학 및 상담, 예약 기능 등을 도입하여 참가기업과 방문객이 실시간으로 소통할수 있도록 유도함
 - 이를 위해 3D 모델링을 이용하여 실제 전시장과 같은 형태의 체감형 가상공간에 디자인 서식이 미적용된 부스를 제공하고, 전시 주최자의 기호에 따라 인테리어를 직접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과함
- 또한, 대전시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디지털 MICE 공간조성 사업'
 에 선정됨에 따라 대전컨벤션센터 전 공간에 고성능 화상회의 시스템과 초대형
 다기능 LED 스크린 패널을 설치했으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음
- 고경곤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경 쟁력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전의 MICE 인프라가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 경상남도: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 및 홈페이지 개설

- 경상남도는 창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ROBOCO) 홍 보를 위한 '2021 ROBOCO 행사개최 지원' 사업을 진행함
 - 지원 금액은 총예산 1억 7천만 원 안에서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은 행사장 사용료, 행사장 인테리어 조성비, 홍보비, 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2021년 경남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인 행사를 주관하는 협·단체, 대학, 기관 등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국제회의기획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직접 전시회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업체만 지원 가능함
 - 선발된 대상자는 행사장 내에서 마산로봇랜드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설문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함
- 한편, 9월 16일,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방문객을 위한 VR 투어, 행사안내, 시설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함
-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와 달리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난 위치를 강조하여 힐링과 교류의 이미지로 브랜딩 할계획이며,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채널을 강화하여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경남로봇랜드재단 권택률 원장은 공식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대폭 완화된 지원 조건과 상향 조정된 개최 지원금 사업을 통해 MICE 행사 유치를 촉진하여 로보 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경상남도: 부산관광공사, 지역 산업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2021 부산 MICE 얼라이언스 워크숍' 개최

- 9월 13일~17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역 MICE 업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2021 부산 MICE 얼라이언스 워크숍'을 개최함
 - 부산 MICE 얼라이언스는 부산 소재의 MICE 유관기관 및 업계 간의 협력을 통하여 행사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전문시설, 기획·운영, 지원, 주최자로 구성된 4개 분과 이래 234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음
- 본 행사에서는 분과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트렌드 강의를 마련하 였으며,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및 메타버스 등으로 변화한 MICE 산업 환 경 등 최신 기술 동향에 관한 교육을 진행함
 - 첫날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지원분과를 중심으로 AI 인공지능과 MICE 산업에 대한 트렌드 강의를 수강하며 향후 MICE 산업에 도입될 인공지능 장비 및 플랫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둘째 날에는 전문시설 분과를 대상으로 4차 신업혁명에 적합한 MICE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침체된 MICE 산업의 부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이번 행사는 본래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면 행사로 전환했으며, 오랜만의 네트워크 행사에 지역 MICE 업계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 용선중 부산관광공사 마케팅 실장은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기반이 되는 회원사 간 교육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꾸준히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 MICE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 유일의 종합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KDJ E-MICE' 구축

- 9월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점차 확대되는 하이브리드 행사 수요에 대응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MICE 특화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KDJ E-MICE'를 공식 오픈함
-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전시 주최시는 각 행사 별 전용 페이지를 마련하여 효과적 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관람객은 정보검색과 사전예약, 알람 신청 및 라이브커 머스 등 각종 이벤트에 보다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음
 - 또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온라인 플랫폼 공개 이전, 중소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환경 적응을 위하여 웹 스튜디오, 웹 세미나실, 화상 상담장이 마련된 K-스튜디오를 마련 하여 콘텐츠 제작, 화상회의 등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 바 있음
- 이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KDJ E-MICE와 K-스튜디오를 기반으로, 비대면 MICE 행사 운영을 공간적 하드웨어와 온라인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전시회 마케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임
- 김대중컨벤션센터 정종태 사장은 하이브리드 추세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적인 온 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임



[그림 14]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KDJ E-MICE'

■ 제주도: 세계 유일의 E-모빌리티·순수 전기차 엑스포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 9월 7일~10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다양한 E-모빌리티 산업을 진단하는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함
 - 2014년 최초 개최된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는 연간 5만여 명이 방문하는 국제행사로 발전했으며, 제주도의 미래비전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실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음
- 이번 행시는 E-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기업의 실질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B2B 비즈니스 미팅, PR 쇼를 비롯해 전시회, 컨퍼런스, 시승 체험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행사가 개최된 4일간 국내외 2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합해 총 700여 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됨
- 부대 행사로는 자동차에 이어 선박으로 확장되는 전동화 추세를 반영해 전기선박을 주제로 한 포럼을 진행했으며, 하늘을 나는 E-모빌리티로 주목받는 도심형 항공교통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글로벌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와 에디슨모터스 등의 완성치업체와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분이의 주력 기업들이 B2B 미팅에 참여했으며,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 파견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김대환 IEVE 공동조직위원장은 전기차 불모지에서 새로운 기반을 닦은 지 10년을 맞이하며 세계 유일의 순수전기차 엑스포로 거듭난 만큼 신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전기차 공존, 녹색성장에 책임감을 갖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힘

.